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I. 서 론

현재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육 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은 시대적인 흐름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으나, 문화적인 인식을 비롯한 사회·경제·정치적인 구조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고 방치한 결과이다. '2류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의 문제로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나라 맥락에서는 언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점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 측면보다는 오히려 개발·편성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천해본 경험이 없다는 데 있다. 즉, 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었으나, 교육과정 적용(Curriculum Use)의 관점보다 다양한 전개(Curriculum Evolution)라는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Curriculum Implemen- tation)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었다.

본 고에서는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개선 방안의 모색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었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병 욱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II. 논의의 중점 사항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개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1) 평생학습의 도래 및 능력 중심 사회적 특성 강화

평생학습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단순한 진학의 개념보다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계속적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학력보다는 능력중심 사회적 특성을 갖게됨으로서 학습과 일이(school to work) 연계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정보고등학교, 복지고등학교, 환경고등학교 등과 같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된 중등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 해야한다.

(2) 기존에 제시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

새로운 개념 및 체제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교육과정 및 현재 각종 시범 · 실험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개선안(교육과정의 다양화 · 특성화 · 자율화 및 수직적 · 수평적 연계 등)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문제점들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수정 ·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 운영 등을 통한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을 선택, 재조직뿐만 아니라 개발의 측면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 내 · 외 . 적인 요인에 의한 복잡한 학교운영에 새로운 '무엇'의 도입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총체적인 문제는 개발된 교육과정과 체제가 많은 시간을 통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발휘되지 못하였고, 그 효과를 제대로 판단해보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이제는 개발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실천이 필요하다.

(3) '소외된 다수(neglected majority)'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만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는 새로운 교육문제 잉태를 암시한다. 어느 계열이든 학교급별이든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습자가 있으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습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학교 조직 또는 사회에서 학력에 의한 차등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가장 잘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 학력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과정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향점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기능 · 기술교육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기관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의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설정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소질과 흥미에 근거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 단계에서 교육을 통한 진학과 다양한 취업으로의 진로선택은 학습자의 고유한 진로결정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하며 인위적인 정책을 통한 강제적 진로 선택은 지양되어야 한다.

III.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육과정의 차별화, 학교의 규모, 교수-학습 형태, 선택 과목 및 학기제 운영,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이론+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평가, 실업 고등교육기관 등의 견지에서 각 실태와 이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1)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합의되는 교육과정

1) 실태 : 실업계 고등학교 성격과 목적에도 나타나 있듯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학습자의 일부분은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길 바라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과 산업체는 취업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길 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요구 분석을 통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학교 목표 설정 및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논의 :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 중 학습자와 산업체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 수요자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요구와 산업체의 요구는 '계속교육'과 '완성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만 논의되고 있어 다양화 · 특성화 추세인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이라는 2원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제안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형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면 학교 목적 설정 및 교육과정 운영시 일대 혼란이 예상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각 교육 수요자들의 다원화된 요구를 일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학습자의 진로 선택은 어떠한 인위적인 조정보다 소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 특성화 · 자율화를 통하여 학교 유형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학습환경을 갖게 하되, 진학과정 또는 취업과정 등으로 구분 짓지 말고 학습자 자신이 자연스럽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합치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자연스러운 진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독일의 '아비투어'와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의 대학입시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에 대한 평가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과 동일하게 인문교육 위주의 대학입시 점수에 있다. 또한, 약 3% 정도의 예 · 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는 존재하면서 약 40%정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립근거를 거론하기에 앞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진학욕구를 보장해주자는 최근의 직업교육학자들의 주장을 모순되게 한다.

(2) 교육과정의 차별화 (curriculum differentiation): 숙련 기능 기술 중심, 다기능 기술 중심, 기초 공학 기술 중심

1) 실태 :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중점이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능력, 소질, 성향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단일 기능의 심화 과정을 원하는 학생, 다기능 · 기술을 원하는 학생, 그리고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공학기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등으로 그 요구가 다양하다.

2) 논의 : 우리 나라 헌법 39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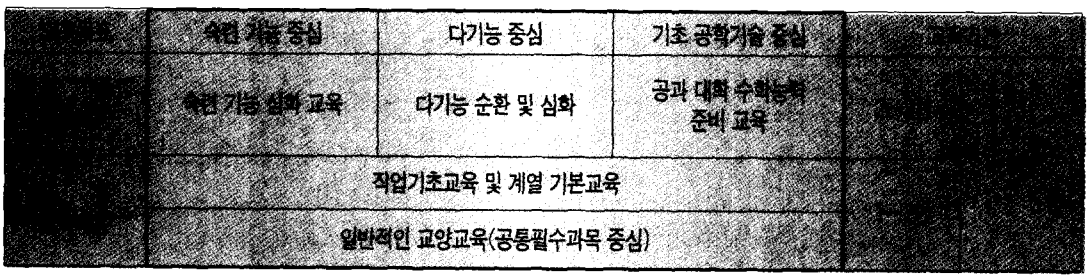
육으로 교육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태어난 잠재능력을 다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을 정부가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필수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와 같은 다원주의적 학습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논리 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교육에서의 공평이란 학습자의 능력 수준, 요구 수준, 개인적 특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두정, 1999:122). 따라서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인정하고 교육자들은 그러한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한다.

3) 개선방안 : 학습자의 능력, 소질, 성향, 가정환경 등에 따라 각 전문 실습실 별로 교육과정을 숙련 기능 기술 중심, 다기능 기술 중심, 기초 공학 기술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안되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진학중심, 취업중심으로 2원화 되어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그림 1〉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도 확립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개인차가 고려되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진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이 모형의 다기능 기술 중심 과정은 타 학과의 기능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학과간의 벽도 허물도록 하고, 기초 공학 기술 중심 과정은 공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일반교과(공고 기계과의 경우 수학, 과학 등)와 전문교과(공고 기계과의 경우 기계설계)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통교과목과 전문교과목이 통합되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교의 소규모화

1) 실태 : 실업계 고등학교(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학교 규모, 교사수, 학생 수 등이 크고 한 학교에 많은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 또한 복잡하여 학교장이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크다.

2) 논의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조직이 너무 크면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경직성을 띄게



〈그림 1〉 교육과정이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모형

마련이다. 특히, 학교중심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과별, 각 학년별로 미니학교 형식의 소학교 체제를 두고 학과 담당 부장 교사가 관리 ·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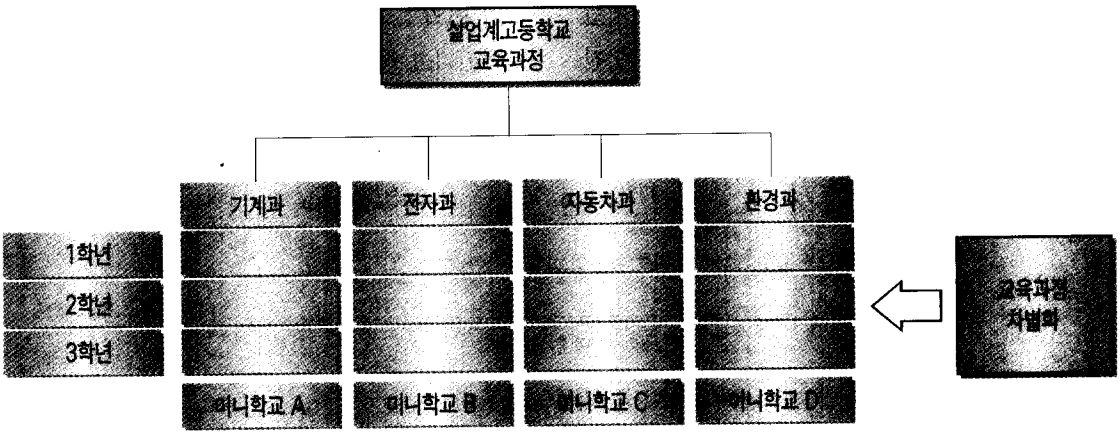
3) 개선안 : 신설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규모는 소규모화, 특성화, 정예화를 지향하도록 하고, 공동 실습소를 확충하여 공통되고 필요한 기능 · 기술교육은 여기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대규모 실업계 고등학교는 각 학과별로 담당 부장의 책임아래 독립적인 학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도 학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형태와 교육과정 모형은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형태의 다양화

1) 실태 : 요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동학습', '프로젝트식 교수-학습 방법'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은 이러한 방향성에 오히려 제한 사항으로 작용되고 있다.

2) 논의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들이 학교현장에서 원

〈그림 2〉 소규모 교육과정의 형태



〈그림 3〉 실업계 고등학교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모형(예)

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설 구축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 · 실습실의 운영은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따라서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시에 학습자의 능력과 학습 형태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 문제해결력, 협동학습, 프로젝트법 등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개선안 : 전문실습 교과목의 교수-학습의 형태를 전통적 강의 및 실습(traditional instruction & practice)형태, 실험 · 실습실 중심 수업 (Life Lab)형태, 원격수업(distence instruction)형태로 다양화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실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험 · 실습실 중심의 수업 형태를 가급적 지향하고 나머지 형태는 학습의 내용, 개인차, 학습 형태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에 현재의 실험 · 실습장을 다시 재편성하여 가급적 1~2명의 교사가 책임을 지고 담당할 수 있는 실습장을 고려할 수 있다. 실습장의 명칭도 '△△선생님의 ○○ 실습장' 등으로 하고, 한 실습장에 1, 2, 3학년을 각각 약 10명씩 배정하여 도제 제도식 협동학습이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학급 담임의 형태도 실습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미국 중학교의 미니코스식 주제별 학습이나, 동경 도립국제고등 학교의 '과제연구'에서처럼 각 실습실별로 하나의 테마를 심도 있게 추구하도록 하고 학점도 부여하도록 한다. 코스의 테마는 미리 정해 놓고 학생이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선택 과목 확대 및 탄력적인 학점 운영

1) 실태 :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에는 교과목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조직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관계법 등의 경직성과 교사 수급 및 그 운영상의 문제로 학생 중심의 과목 선택보다는 학교 행정 중심의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논의 : 제7차 교육과정에도 강조되고 있는 선택과목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내용 및 경험들은 매우 다양하고 기술 발달의 가속화에 따른 개정의 주기가 짧아지므로 선택과목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3) 개선안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결정아래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단위수의 부여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목의 선택은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선택과목의 확대는 학교의 운영을 학년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기제 운영할 때 적절하다. 학교에서 설치되지 못한 선택과목에 한해서는 인근의 학교, 직업훈련원, 학원 등에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학점도 인정하는 탄력적인 학점 운영제 도입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6)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1) 실태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론과목 수업에 대한 집중률은 낮은 편이나 실습 위주 수업에 대한 수업 집중률은 높은 편이다. 또한 제7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의 통합 교과서 개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수교사의 확보, 학급당 학생수 조정, 실험 · 실습장의 환경개선 등에 관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나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논의 : 실업계 고등학교에 2002년부터 적용될 제7차 실업계 교육과정은 기초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직무 분석에 근거한 교육과정,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과정,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교육과정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중 교과서와 교수-학습 방법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건은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이 통합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과 · 실습의 통합 운영은 체험학습의 원리에 바탕을 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의 적합성 제고', 둘째, 유사한 내용에 대한 중복 교육의 극복과 실험 · 실습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교육의 경제성 제고', 셋째, 이론 · 실습 통합에 따른 '교수-학습의 효율성 제고', 넷째, 산업체를 비롯한 '각종 작업장의 적응성 제고', 다섯째, 전공이론과 실험 · 실습을 통합시킴으로써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학습'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욱 · 노태천, 1999).

3) 개선안 : 이론 · 실습이 통합된 교육과정은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목은 계열에 따라 제각기 독특한 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많은 수의 교과목이 교육과정상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유형과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개발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은 계열과 교과목의 성격, 학습자의 학습유형과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론 · 실습이 통합된 교육과정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은 표준적인 기업체의 작업장과 유사해야 한다. 학습자는 환경 속에 내재된 가치와 함께 학습되기 때문이다.

(7) 주기적인 교육과정 평가 실시

1) 실태 :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시에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필요성이 없는 계열과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시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개정되는 사례가 있다. 반면에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기술분야의 경우에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모순점이 상존해 있다.

2) 논의 : 시기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적용과 전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이 개발 ·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달성해야 할 성취 목표와 그것의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 평가, 판단, 기록, 보고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 개정의 근거도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ndulic, 1994).

3) 개선안 : 다양한 계열과 교과로 이루어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평가는 관련 분야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각종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요인 재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는 현장실습, 3학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검정, 기능훈련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 현장실습 기간

1) 실태 :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정이 모두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3학년 2학기에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남아 있는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대학입시 관련 서적으로 주로 자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묵인하면서 학생들과는 무관하게 교과진도를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나 현장실습을 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에 형식적으로 출석하고 있으며, 수업과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학년 담임 교사들과 현장실습 담당 교사들은 현장실습관련 준비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현장실습 의뢰업체의 확인을 위한 출장과 현장실습생들의 추수지도를 위한 출장 등으로 수업의 결손이 발생되고 있다.

2) 논의 : 현재와 같은 현장실습 운영 방식으로는 현장실습에 따른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고학년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누적되어 저학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는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라는 본래의 현장실습의 목적보다는 '조기 취업 또는 가취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현장실습은 2주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습기간중 임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철저하게 견학 위주로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습후 학부모를 초청한 자리에서 자기의 경험담을 공개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실습이 진로탐색과 학습의 연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되고 있다.

3) 개선안 : 현장실습을 폐지하거나, 또는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사전에 학교와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업 가능 직종과 인력 수요를 판단한 후 지역 산업체의 요구 및 인력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한다. 그 후 이들을 중심으로 해당기업체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3학년 2학기 학교실습 시간 또는 공동실습소에서 해당 분야 심화 실습을 실시하고, 실제 현장 실습은 졸업전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견학위주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기능 검정

1) 실태 :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기능시험 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검정이 치러지고 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3학년 1학기 거의 모든 실습시간 뿐만 아니라 기능검정에 임박해서는 1, 2학년의 실습시간과 실습재료비가 3학년들의 기능 검정을 준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1, 2학년의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학년 수업도 기능 검정을 위한 실습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2) 논의 : 기능사 자격 취득율은 주요 학교 평가 항목과 학교 홍보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는 기능 검정시 자격증 100% 취득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검정을 통한 거의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 예정자들의 합격률은 약 90% 이상이다. 이 중에는 실질적인 노력과 실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기능의 숙달정도가 미흡한데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 자격증에 대한 신뢰성과 취업후 작업 수행과정의 안전성 및 생산 제품의 신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3) 개선안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시 졸업 인증제를 실시(학과시험+기능 평가+졸업 작품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격증을 부여(자격증 취득율을 학교평가 항목에서 삭제하고 학교에 자율성 및 책무성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자격증이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다. 기능훈련

1) 실태 : 모든 재학생들을 위한 실험 · 실습비의 일정 부분이 소수의 기능훈련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훈련 관련 학생들은 주로 기능 훈련에만 매달릴 뿐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기능대회, 전국기능대회 등이 열리는 시기에 임박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영향이 있다.

2) 논의 : 기능 훈련으로 각 학습 영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적 원칙이 부정되고 기능 훈련생이 아닌 학생들은 실습비 배분의 형평성 및 사용 기회가 박탈될 소지가 많이 있다. 또한 기능 대회시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비교육적 요소가 잔존해있다.

3) 개선안 : 중등학교에서는 기능훈련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학생의 신분으로는 각종 기능관련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자체 또는 교육구내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기회가 부여되는 기능대회를 개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9) 5년제 실업 고등교육기관 설립 또는 실고와 전문대의 통합화

1) 실태 :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교육의 자구책 마련과 고급 기능 · 기술 인력난에 봉착한 산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2+2등을 통한 수직적인 연계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물리적 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 미흡, 인식부족, 인문기초과목의 학습능률 저조, 조정자, 상담 전문가, 산업체 인사 배제 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입학생 확보와 진학률 상승이라는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간의 이해관계로 2+2 연계 교육의 장점이 상쇄될 우려가 있다.

2) 논의 : 최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5년 과정의 기능기술원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기능기술원의 도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 요청되는 정예화된 기능 ·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3년이라는 기간으로는 부족하고 5년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

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예상효과로서는 산업체 수요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후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보람과 성취감을 제고 할 수 있어 학습자의 진학에 대한 요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개선안 : 5년제의 기능기술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 전공과 2년 과정을 두거나, 5년제의 실업 고등 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산업사회의 변화 ·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 ·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3년보다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3년에 전문과정 2년을 덧붙인 5년제의 실업전문학교(가칭) 또는 기능기술원과 같은 새로운 학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국 ·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엄격한 교육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기능 · 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 ·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 10개 내외를 실험적으로 "실업전문학교(또는 고등실업전문학교)"로 승격시켜 운영하거나 국 · 공립 전문대학과 M&A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Ⅳ. 과 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개선안들은 기존의 개선안과 연계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개선안들은 지향하는 교육과정적 철학을 중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의미 있고 효과 있는 교육적 시도가 실현 가능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에서 강조되는 문제해결법, 프로젝트법, 수행평가 등이 실현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개발 ·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에서의 차별이 교육에서의 차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안은 '우수 엘리트를 지향하는 교육'이 아닌 '소외된 다수', '잊혀져 있는 다수'를 위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과 동시에 삶의 본질과 방식을 성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작품의 완성 또는 작물의 생육과 수확의 단계를 경험하면서 삶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든지, 작물을 소중히 했듯이 자기자신을 더욱 더 소중히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능 · 기술'에 관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이다. 기능 · 기술자를 기르면 기능 · 기술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길러져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개혁은 반드시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만일 잘못된다면, 그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특히, HRD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개발 · 운영되려면 교육과정이 법령에 의해서 공포되어야 한다는 교육과정 법정주의에 대한 고정관념,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모든 교과는 같은 시기에 같은 형식의 교육과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획일주의에 대한

고정관념 등과 같은 경직된 사고로부터 보다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정부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라는 의식을 극복하지 않는 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교육 당국과 학교의 재량권 대폭 신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덟째, 참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열정적인 노력이 절대적인 선행 요건이다.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장의 철학과 관심,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위한 환경제공은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아홉째,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야만 제대로된 학교체제이다"라는 인식보다는 "교과내용, 학습환경, 학습자 수준 및 발달단계 등의 특징들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학교체제가 바람직한 학교체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김두정(1999). 교육과정의 차별화. 교육발전논총. 20(1).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121~141.

김재춘(1998).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1(1). 17~29.

이병욱 · 노태천(1999). 이론 · 실습 통합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충남대학교 대학원 공업기술교육학과 하계 세미나 자료집.

이용순, 이병욱(1999). 제7차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4(1). 122~148.

Fullan(1991).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 Internal Ency. of curriculum. Oxford: Pergamon press.

Rendulic, P. A.(1994). An investigation into the potential value and the validity of a curriculum evaluation model for community colleges.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Sabar, N(1985).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7(1). 452~454.

森和夫(1995). ハイテク 時代の 技能勞動; 生産技能の 變化と 教育訓練. 中央職業能力開發協會. 1~12.

松本重男(1982). プロジェクト學習の理論と實踐. 筑波書房. 70~74.